

서면질문 답변서

- 서면질문 제출
 - 99년 7월 9일 남재우 의원 제출
 - 99년 7월 9일 시장에게 이송
- 서면답변서 제출
 - 99년 7월 16일 시장 제출

남재우 의원

□ 질 문

○ 부천무역개발(주) 임직원을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공고하였으나 현 대표이사는 이력서도 제출치 않았음에도 대표이사에 선임된 것은 원인무효이며 다시 공개채용할 것을 촉구함

□ 답 변

-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임직원 채용에 관하여는 지난 5월 21일 한국경제신문에 임직원 모집공고를 하여 5월 31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았으며 그 결과 경력자가 169명 응시하였음
- 이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1차로 6월 4일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하여 임원의 요건과 경력 구비자로 판단되는 3명을 선정하였음
- 그러나 대표이사의 내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보다는 발기인 대표인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음
- 이와 함께 3명에 대하여 경력 평가와 면담을 통해 부천무역개발(주) 대표이사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개인별로 나름대로의 장점들은 갖추었으나 부적합한 면도 발견되었음
- 이에 따라 외부로부터 박철순 씨를 포함한 대표이사급 인사 3명을 더 추천받아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게 되었으며

- 부천무역개발(주)의 대표이사의 중요요건으로 화려한 학력과 경력보다는 사심없이 봉사할 수 있고 부천시와의 연관성과 책임성 및 희생정신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또한 회사 창립초기는 공격적 경영형태보다는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관리형 인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부천시 해외세일즈단을 운영하면서 부천의 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정보를 갖고 있으며 무역과 관리분야에 고르게 경력을 갖춘 박철순 씨를 적임자로 내정하게 되었으며 99. 6. 24 창립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적인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음
- 회사의 명운을 책임질 대표이사 선정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약간의 혼선은 있었으나 신설 회사의 초석을 다지고 안정적 발전을 담보할 적임자를 선정해야 하는 일념에서 제반사항을 감안한 불가피한 과정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

□ 질 문

- 시설관리공단과는 관계가 없는 특정인 6명을 특채하여 급수별로 배치하는 등 특정인들의 자리보전용 인사라는 비난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답 변

- 99. 7. 1일 공단 창립과 동시 공단 임직원 49명 중 당일 직원 28명을 특별채용하였으며, 채용된 직원 중 대부분은 시에서 공단으로 진출을 희망한 공무원으로서 시, 구 등에서 근무하던 공무원과 공단설립준비단에서 공단 설립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및 복사골문화센터와 시민회관 등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 등을 채용하였음
- 외부에서 특별채용한 직원 6명은 능력과 자질, 인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단업무 추진에 적합한 자를 선발한 것으로써 어느 특정인을 위한 채용은 절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업무 추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채용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철저한 성과 주의를 통해 검증토록 할 계획임.
- 나머지 직원 선발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바탕으로 능력있고 참신한 인재를 선발토록 하겠음.

□ 질 문

- 복사골문화센터 직원 공채 면접시 일부 응시자만 면접을 보고 나머지 응시자는 귀가시키는 등 탈락한 응시자를 우롱한 처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

□ 답 변

- 먼저 직원공채시 운영미숙으로 관계되는 분들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사과드리며, 이번 문화사업본부 공채요원 응시자는 56명으로서 서류심사를 하여본 결과 총점 40점을 백분율로 계산할 때 평균 60점에 해당하는 24점 이상 득점자가 19명이었음.
- 또한 서류심사 점수 미달자 37명의 경력을 볼 때 면접 총점 60점을 득하여도 19명의 서류심사 합

격자를 제치고 합격권 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명확하며, 56명을 하루종일 면접하려면 불합격될 것이 확실함에도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이 있어 그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서류심사 결과 24점 이상자만 면접을 보게 되었음.

- 이번 문화사업본부 직원 공개채용에 있어 인사위원들의 미숙으로 탈락된 분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